요약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축복** **(2023년 12월 3일 주일 설교)** **제49주**

에베소서 1:3-6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과 핍박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문장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헬라어 원어로 3~14절이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장 중 가장 긴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쉼표도 없이, 마침표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3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받게 된 영적이며 온전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창세전에 선택하심의 축복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먼저 창세전에 선택하신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 선택하셨다는 것이 4절을 시작으로 5절, 9절, 11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은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뜻,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 적인 사랑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면 감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찬양할 수 밖에 없게 인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으로 감격과 찬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축복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번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이라는 말이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모든 은혜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5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받게 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생의 의무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삶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우리의 목적은 한가지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고전 10:13, 롬14:7~9)

우리 모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 심판 받고 멸망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과 죄를 위해, 자신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만 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 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4(월)	12/5(화)	12/6(수)	12/7(목)	12/8(금)	12/9(토)	12/10(주일)
고전12-14	고전15-16,고후1	고후2-5	고후6-9	고후10-12	고후13,갈1-3	갈4-6,엡1

QT

이번 주 QT 말씀

12/4(월)	12/5(화)	12/6(수)	12/7(목)	12/8(금)	12/9(토)	12/10(주일)
골 2:1-15	골 2:16-23	골 3:1-11	골 3:12-17	골 3:18-25	골 4:1-9	골 4:10-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구원 받은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되는지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나누어 주세요.

4. 구원 받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